

해 외 출 장 보 고 서

1. 출장개요

출장목적	경기도 의회 공문(기획재정전문위원실 1365) 「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」 ¹⁾ 참여협조에 의거하여 공무국외연수 참여
출장동기 및 배경	○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일부 지역(가평군, 연천군)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방안 마련 시급 ○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경기도에 적용할 개선 방안 모색 ○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중 경기연구원(오재호 연구위원)은 대만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, 정책지원관 제도의 추진 가능성 검토,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을 담당
출장기간	2024.05.20.(월) ~ 2024.05.24.(금), 4박 5일
출 장 국	대만(타이베이, 타이난, 가오슝)
과 제 명	대외협력교류(해외교류)
출 장 자	오재호(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)

1) 2024 기획재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

- ① 인구감소에 따라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이탈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지역소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 연천군, 가평군, 동두천시, 포천시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
- ② 인구감소와 도시소멸의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만을 방문하여 인구대응 전략 및 도시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 공유
- ③ 중앙정부 인구 정책의 보조 역할을 넘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형 인구전략을 모색 하고,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 방안을 강구

2. 출장 주요 일정

날짜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주요내용	
5.20.(월)	인천공항	타이베이	-	10:00~ 11:30	○ 인천공항 출발 ○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 도착
				14:00~ 17:30	○ 기관 방문사항 논의를 위한 자체 정담회
5.21.(화)	타이베이	타이난	타이베이 시의회	10:00~ 12:00	○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벤치마킹 (면담자 : 다이시친(戴錫欽) 의장)
5.22.(수)	타이난	가오슝	타이난 시청 문화국	10:00~ 12:00	○ 지방소멸 대응 정책(지방창생) 도입 과정 및 성과 (면담자 : 자오칭후이(趙卿惠) 부시장)
			타이난 엔수이	14:00~ 16:00	○ 관광여유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성공 사례 시찰 (면담자 : 예즈밍 부국장, 쑤더린(孫德仁))
5.23.(목)	가오슝	타이베이	가오슝의회	10:00~ 11:30	○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논의 (면담자: 강위청(康裕成) 의장)
			현장답사	13:30~ 15:00	○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-관광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연구
5.24.(금)	타이베이	인천공항	-	9:00~ 10:30	○ 공항 이동
				12:25~ 14:45	○ 타이베이 공항 출발 ○ 인천공항 도착

3. 면담자 인터뷰 주요 내용

(1) 타이베이 시의회(台北市議會, Taipei City Council)

- 일시 : 2024년 5월 20일(화) 16:00~17:30
- 장소 : 타이베이 시의회(No. 507, Section 4, Renai Road, Xinyi District, Taipei City, 110201)
- 면담자 : 다이시친(戴錫欽) 타이베이 시의회 의장
- 주제 : 대만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제도 연찬
- 주요 내용
 - 타이베이는 대만 수도이면서 최대 도시로서 정부 부처와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정치, 경제, 문화 중심지임
 - 2008년 치른 제9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서부 지금까지 8개 선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, 인구밀도가 높고 시민의식이 성숙한 도시임
 - 타이베이는 출산율이 낮아지고, 인구가 줄며, 고령화로 인해 도시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에 직면함
 - 건물이 노후화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, 기후변화에 따른 탐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함
 - 타이베이 시의회는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의회 사무를 담당함
 - 지방의회로서 타이베이시의회는 2022년 제14대 의원 선거에서 총 6개 지역구 및 2개 원주민 지역구로 나누어 총 61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, 의장은 다이시친(Tai Hsi-Tsin), 부의장은 예린촨(Yeh Lin-chung)임
 - 비서장 1명과 비서장을 보좌하는 부비서장 1명을 두고, 비서실, 안전논의팀, 총무팀, 문서팀, 홍보실, 법규 연구실, 정보실, 인사실, 회계실 9개 팀 및 실로 구성됨
 - 7개 상임 위원회(민정, 재정 및 건설, 교육, 교통, 경무 및 보건, 공공사업, 법무)와 2개 특별 위원회(절차, 규율)로 구성됨
 - 타이베이 시의회는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-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6~8명의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으며, 시(county) 의회 의원은 2~4명의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음
- 모든 보좌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며 의원 임기가 끝나면 함께 자동적으로 퇴사함
- 보좌관 인건비는 의원 1인당 NT\$240,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각 공공 보좌관이 받는 월 NT\$80,000를 초과할 수 없음
- 보좌관은 입법보좌관과 행정보좌관으로 구분되며,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비롯해 지역구 활동을 보조함
- 정책보좌관은 의원이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정역량 개선 목적으로 별도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음
-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안보좌관이 집행부와 논의하여 처리하며, 의회 법무연구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
-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
-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보좌 인력을 통해 지방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
- 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현행 제도는 의원 활동, 일정이 겹칠 때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



<타이베이 시의회 토론>



<타이베이 의회 내부>

(2) 타이난 시청(臺南市政府, Tainan City Hall)

- 일시 : 2024년 5월 21일(화) 14:00~16:00
- 장소 : 타이난 시청(No. 2號, Section 2, Yonghua Rd, Anping District, Tainan City, 대만 708)
- 면담자 : 자오칭후이 부시장, 예즈밍 사회국 부국장
- 주제 : 지방창업 정책 도입 배경 및 정책사례 벤치마킹
- 주요 내용
 - 타이난은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, 가장 먼저 개발된 도시로서 약 190만 명이 거주하는 직할시임
 - 2010년 12월 25일 타이난현과 합병하여 직할시로 승격함
 - 타이난시(Huang Wei-che 시장)는 사무국, 법무부, 정보 국제 관계부 등 9개가 있고 민사국, 교육국, 농업국, 경제개발국, 사회국, 노동국, 국토관리국, 문화국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됨
 - 문화국은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담 부서로 지방창업관광여유환경조성 정책으로 타이난 등불 축제를 비롯한 연수이 지역 활성화에 주력함
 - 타이난시는 생육장려법을 시행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 및 노년층 일상적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함
 - 출산을 했을 경우 대만돈으로 2만달러(84만원), 탁아소 이용료 대만돈 5천달러(21만원) 등을 지원함
 -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지원하는 사회주택 정책을 추진함
 - 인구가 적어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시에서는 버스와 같은 요금을 택시에 적용하도록 시에서 지원하며, 65세 이상 틀니 보조금을 지원함
 - 타이난에는 TSMC 회사가 3개 지역에 입주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
 - 타이난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20%에 가까운 가운데 TSMC 회사에 입주한 사람은 1만 명에 가까우며, ‘산화’ 라는 지역은 인구가 증가함

- 다만, TSMC 본사가 타이베이시에 위치하여 세입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주변 협력업체로 인한 세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
- 타이난시에서는 독거노인, 취약계층이 서비스센터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도록 ‘공찬’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함
- 65세 이상 고령층인구의 야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건망증, 노인질환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
-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주 1일, 3일, 5일 주기로 자원봉사 중심으로 진행하며, 1인당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50 대만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함
- 도심지에서는 중앙주방을 선정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, 예산은 지역 기업 후원금으로 마련함
- 타이난시는 TSMC 회사가 입주한 일부 지역에 한해 인구가 늘고 있어 기업을 추가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음
- 타이난시 37개 구 가운데 인구가 많은 곳은 25만 명, 적은 곳은 4천 명으로 차이가 크며,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보조금을 지급함
- 출생, 양육 보조금, 거주지역 내 일자리 제공 등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타이난 과학단지를 유치하여 12만 3천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, 출생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함
- 의료 단지를 조성하여 대형 병원을 입주할 예정이며, ‘공찬’ 정책 거점으로서 중학교를 중심으로 4천 개 노인서비스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



<타이난 부시장과 기념품 교환>



<기념촬영>

(3) 타이난 염수이 지역(鹽水區, Yanshuei District)

- 일시 : 2024년 5월 22일(수) 10:00~12:00
- 장소 : 염수이(No. 23號, Zhongshan Rd, Yanshui District, Tainan City, 대만 737)
- 면담자 : 예즈밍 사회국 부국장 및 쑤더런(孫德仁)
- 주제 : 지역 활성화 방안 및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방안 논의
- 주요 내용
 - 염수이는 타이난 37개 구 가운데 하나로 북서쪽에 위치한 인구 24,447명 규모 도시임
 - 17세기 네덜란드가 타이난시를 중심으로 38년 동안 대만을 지배하다가 명나라 정성공(鄭成功) 장군이 이들을 쫓아내고 동녕국(東寧國)을 건국하였고 당시 한족들이 이주해 염수이를 가로지르는 큰 강에 항구를 건설함
 - 수차례 행정구역 개편 과정을 거쳐 확정된 염수이 구는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지방창생정책 우수 사례로 꼽힘
 - 만조 때 해수가 항구 안까지 들어오는데 염수이(鹽水)는 소금물을 뜻함
 - 시간이 지나면서 항구 기능이 사라지며 경제가 침체하고 도시가 쇠퇴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이탈해 인구 2만 4천 명으로 축소함
 - 염수이구는 축제 위주의 관광업을 앞세워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음
 - 19세기 말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폭죽 축제를 개최하였는데, 약 100년 동안 설날에 열리는 폭죽 축제가 지역 주요 관광 사업으로 정착함
 - 정부에서 최근 폭죽을 규제하면서 규모가 줄고 있어, 대안으로 위예진 강 산책로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2010년부터 지역 예술가 중심으로 매년 등불 축제를 개최함
 - 청년예술가를 공개 모집하여 축제 규모를 확장한 결과 2012년 15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였고, 2014년부터 축제 기간을 37일로 연장하여 50만 명 관광객으로 확장함
 - 2016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 예술가들도 축제에 참여한 결과 2022년에는 11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할 만큼 대표 축제로 성장함

- 2019년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시범 지역으로 옌수이구를 선정하며 지역 예술가를 중심으로 빈집을 미술관, 공연장, 식당 등으로 활용함
- 옌수이는 예술인과 협력하여 지역 전체를 예술전시물로 개발함으로써 인구유입함
- 향후 발전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대폭 늘려야 함



<지역 시설물 내부>



<기념촬영>

(4) 가오슝 보얼예술특구(駁二藝術特區, The Pier-2 Art Center)

- 일시 : 2024년 5월 22일(수) 14:30~17:00
- 장소 : 가오슝 보얼예술특구(No. 1號, Dayong Rd, Yancheng District, Kaohsiung City, 대만 803)
- 면담자 : 취위안전(曲圓珍) *지역 전문안내원
- 주제 : 지역 유휴지 활용한 도시 활성화 현장 시찰
- 주요 내용
 - 보얼예술특구는 가오슝항 제3선착장 안에 있으며 예술개방 구역으로서 학생 및 예술가들이 창작과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
 - 1970년대부터 사용이 줄어 창고와 부두가 쇠퇴하였고, 2000년대 초반에 지역 예술가들이 시 정부 지원을 받아 재개발함
 - 보얼예술특구는 가오슝 도시철도 예청푸 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으며, 자전거를 대여하여 많이 이용하기도 함
 - 가오슝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손꼽히며, 산업 시설을 예술 공간으로 전환하여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도시 재개발 모델로 평가됨

- 보일예술특구는 일제강점기에 잔재인 폐창고 및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지역 명소로 활용함
 - 예술품 및 조형물을 배치하여 역사성을 보존하는 한편 현대적 감각을 살려 현지인을 비롯한 관광명소로 개발함
 - 관광명소로 거듭난 동력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노력하였기 때문이며, 예술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업종을 불허하여 지역 특색을 극대화함
 - 보일특구는 연 400만 명 관광객이 유입하면서 일반적인 상업은 물론 축제 및 이벤트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한 결과 지역 경제에 기여함



<현장 탐방>



<기념촬영>

[5] 가오슝 시의회(高雄市議會, Kaohsiung City Council)

- 일시 : 2024년 5월 23일(목) 10:00~12:00
- 장소 : 가오슝 시의회(No.156, Sec. 2, Guotai Rd., Fengshan Dist., Kaohsiung City 830, Taiwan (R.O.C.))
- 면담자 : Kang Yucheng(康裕成) 의장
- 주제 : 보좌관 제도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
- 주요 내용
 - 가오슝시는 273만 명 인구 규모의 대만 제2 직할시이며, 시의회는 2010년 12월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개원함
 - 4년마다 지방공직인원 선거를 실시하여 15개 선거구에서 65명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, 현재 제4대 의회에서는 65명 가운데 25명(40%)이 여성임
 - 민정, 사회, 재정, 교육, 농림, 교통, 경찰 및 소비자 환경 보호, 공무 등 8개

상임위원회와 법규, 절차, 징계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위원회를 구성함

- 가오슝 시의회 의원은 월 24만 대만달러 보조금 한도 안에서 6~8명 보좌관을 채용하며,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사비를 들여 채용함
 - 채용 요건 및 방식은 의원이 정하며, 지역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자의 종합적인 역량을 중요시함
 - 보좌관은 행정, 법안, 대민 업무 분야에서 법안 및 정책발굴 등을 지원하며 의회 뿐 아니라 지역 시의원을 보좌하여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여함
 - 가오슝 시의회에는 200여 명 공무원이 있고, 상임위원회에 3명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
 - 경기도의회와 달리 대만 보좌관은 의원에 소속되므로 의원 개별 의정활동을 전담함



<질의응답>



<기념촬영>

4. 경기도 시사점

<지방소멸 대응 분야>

□ 지방 창생을 위한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

- 대만 서부권역은 경제, 교육, 문화, 사회, 각종 인프라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인구 85%, 3대 도시 권역에 인구 70%가 집중함
- 대만 인구 고령화, 저출생,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와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하며, 경제 및 과학기술 수준이 고도화한 국가들의 공통점임
- 우리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, 주요 정부 부처 이전,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역 발전 투자협약 등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짧은 기간에 인구와 자본을 분산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
- 청년층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, 청년은 지역 문화 인프라를 생성함으로써 정부와 청년이 협력해야 함

□ 지방 정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결단

- 중앙정부에서 보장하는 가족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지방 정책으로서 유급 육아휴직,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, 보육 서비스, 경력을 이어가는 일자리 지원 등이 요구됨
- 경기도는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0.5에 못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, 일자리, 창업, 주거, 문화 등을 활성화하도록 우선 지원해야 함
-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춰야 하며, 기초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, 교통과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자체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됨

□ 초국가적인 인구 유입 정책 필요

- 국가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, 경기도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혜택이 요구됨
- 우리나라는 국가 개발 시대에 이어 문화 활성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

가운데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요 가치로 표방한 인간 중심 가치 실현을 정책 기조로 확립해야 함

- 단일민족 신화가 사그라지고 순혈주의 세대가 퇴장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어, 경기도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

□ 자동화 기술을 통한 농업 및 제조업 혁신

- 지방의 농업 및 제조업 등 전통 산업이 지속하도록 자동화 기술을 전격적, 실험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구감소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함
- 지역 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한편,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, 에너지, 물 등을 비롯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지역 관리 정책이 요구됨
- 농업, 어업, 채굴 산업의 작업 환경 및 생산성을 고도로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, 새로운 기술을 조작하는 역량을 갖춘 청년 인력을 양성해야 함

<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분야>

□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필요성

-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의원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, 경기도의회에 도입을 검토할 만함
- 정책보좌관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, 정책 영향 평가, 법안 작성, 수정, 검토 등 의원의 충실한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
- 보좌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에게 정책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, 지원관은 행정 및 기술 지원, 정보 수집 등을 주로 담당하므로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의회 현실을 고려하여 보좌관 또는 지원관 제도를 선택해야 함

□ 우리나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방향

- 경기도에서는 의원 2인에게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고 있어 인력 배분 및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채용하기 어려움
- 대만은 지방민의대표법(地方民意代表法)에 의장, 부의장, 시의회 의원, 군의회 의원, 읍 대표자 등 지역 여론대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경기도의회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 근거로서 지방민의대표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다만, 대만 조례는 보좌관 인건비 지급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, 의원 개인 재량에 따라 지역구를 관리하고 개인 비서로서 운용하기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의회와 다름
- 각 지방 의회마다 정책지원관 운용 목적 및 방식, 채용 절차, 소속 등이 달라, 역할과 기능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